'공동임투' 탄압의 돌파구

'91 임투기획

〈完〉 '91 임투전망

생존권 중심의 대중투쟁과 임투병행필요
노동자, 4·5월 정세속 주도권 잡아야

◇현 정세속의 임투는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투투쟁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작금의 노동자 탄압을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에 과연 법이있느냐는 아주 고전적인 반문을 넘어서서 아예 노조활동 하자면 의례 이런 대접을 받는것이 지극히 당연한것인양 탄압불감증에 걸릴지경이다.

노동조합이 지역집회 한번하는데도 암호를 정하고 2중3중의 비밀전술을 구사해야하는것은 물론이며 노조회의를 할때도 도청때문에 노조사무실에서조차 필담을 나눌 지경이고 보면 지금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살고있는 별종들인가 하는 허탈감이 들기도 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자면 감옥갈 각오를 먼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니 노조간부 수련회 정규 '코스'로 아예 징역살이를 포함시켜야 할 판이다.

이같은 경우들을 두고 점잖게 말 하자면 물리적인 탄압, 법적·제도적 탄압, 이데올로기 공세가 심하다고 하겠지만 속이 확 풀리게스리 퍼 붓자면 노동자 잡아먹을려고 미쳐 날뛴다고 할 수 밖에는 없다. 지금 한참 한반도 남단의 거제에서 벌집쑤신듯이 난리가 나고 있는것만봐도 알 수 있다. 3월27일 새벽 4시15분,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시간에 백순환 위원장네와 강용길 부위원장집에 각목과 파이프로 무장한 한 무리의 '떼 강도'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유리창을 박살내면서 침입하여 강제로 연행해 갔다. 수 십명의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도 비슷한 대접을 받으면서 끌려갔다.

이유는 단 한가지다. '법을 엄격히, 그리고 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란다. 다른데는 파업을 하면 다 구속했는데 대우조선만 예외여서는 안되겠기에 비록 한 달 반이나 지난일이긴 하지만 '골리앗'파업투쟁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죄를 걸어 온 것이다. 합법적인 쟁의나 평화적인 타결, 김우중의 고소취하, 민·형사상 책임불문약속도 엄격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할 법 앞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수서비리, 낙동강 폐수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을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호도하려 하고있다

장기집권을 향한 권력편재 구도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자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함으로서 올상반기 전 민중적 투쟁을 파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수서비리, 낙동강폐수오염, 부정부패, 정치적 무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저항을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호도해 내고자 하는 책략이다. 다시 말해서 정권의 정치적 위기감이 반동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불과하다 하겠다. 노동자들이 임투체제를 정비하기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임투 주력부대를 깨 놓는것이 임투가 본격화된 시기에 대응하는것보다 정권의 출혈이 훨씬 적을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2월, 파업사업장 자원방안을 의논했다고 3자개입으로 '연대회의'간부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 노동자 탄압에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것이다.

다시 요약하자면 지금의 탄압공세는 현정권의 정치적 이해에 기초한 작위적인 탄압이므로 근거나 정당성에 있어서 대단히 취약한 기반위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 자충수에 발목이 빠지든지 아니면 노동자와 민중세력의 저항투쟁이 완강하게 전개되면 명백히 한계를 드러내고야 말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동자 임투전선의 취약성이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즉 전노협과 '연대회의'로 구성된 공투본(임금인상과 물가폭등저지 및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 전국중앙조직으로서의 구심력과 지도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임투 초반 정세는 중앙조직의 지휘와 통제속에서 역량이 배치되고 전체일정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전국노조 대표자 비상회의나 임투공청회, 공투본 구성 일정 등 여러 사업장 차원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었으므로 단사투쟁 전선에서는 이를 돌파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단위사업장 임투라 해도 전의욕적인 사업계획등이 순연되어 왔던것이다.

그러나 현 정치정세 속에서 노동자들의 대응투쟁은 어쩌면 보다 단순하고 분명해지는 셈이다. 임투에서 전국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우선 조직적으로는, 공투본을 축으로 광범한 공동투쟁을 수행하는것이다. 전국공투본과 각 지역 공투본이 단위사업장 투쟁역량을 최대한 지역역량화, 전국역량화하도록 해 내는 일이다. 자본의 공세 자체가 오래전부터 단위노동자적, 전 계급적 대응을 통해서만 맞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 가장 유력한 힘과 체계가 공동투쟁이고 공투본체계이다.

투쟁전술적으로는, 주된 단위사업장 투쟁역량을 전진배치시켜내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적, 전국적 투쟁역량을 배치하여 총 노동자 전선을 구축하는 일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우조선 노조의 투쟁과 폭풍전야와도 같은 현대중공업투쟁에 대한 의미가 크게 부여되는 이유가 여기있다. 아직 정확히 형성되지는 않고 개별공격에 침탈당하고 있는 전국 노동자 임금투쟁을 하나의 전국 단일전선으로 모아내는 축으로 이들 투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은 이미 일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저들의 공략자체가 올 상반기 전 노동자 임투 전선을 붕괴시키고 총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하는 관문으로 보고 있는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 투쟁의 성격은 규정된다고 보는것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노동투쟁은 청년학생들의 투쟁과 민중운동권의 4·5월 투쟁과의 관련성속에서 위치지어 내야 한다. 아울러 전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것으로서의 노동자투쟁이 될 수 있도록하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건, 누구한테건 지원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지금까지의 관성을 일정 극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반기 투쟁에서 전 민중세력과 함께하는 투쟁이라는 의미는 전 민중적 이해와 요구인 물가, 조세, 환경, 사회민주화에 노동자의 요구투쟁을 접맥시켜내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희 식
〈전노협 대기업특위 전문위원〉

매체통한 '경희 사랑'

학내관련단체 탐방〈3〉…고황언론인동우회

지면 행간속에 살아 숨쉬는 "애교심"
매년 "고황언론인의 밤"통해 결속 다져

'고황'이란 첫마디로 시작하는 학내외의 단체는 많이 있다. 그러나 '고황언론인동우회'인만큼 고황골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다른 동문들의 모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개성을 갖고 있는 고황언론인동우회는 명칭그대로 본교출신의 재경(在京) 언론계 동문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학교를 떠나 언론계에 종사하는 동문들이 모교를 위해 많은 돈을 내거나 재학생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할 정도의 형편은 아직 못된다고 봅니다. 단지 신문은 신문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각자의 매체를 통해 '경희'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학교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한다는 것이 이 모임의 뜻입니다"

현재 제3대 회장을 맡고 있는 황소웅 동문(정외과 13회 졸업·한국일보 편집국 부국장)의 말이다.

만약 체육경기에서 본교가 타대학을 이겼을때 '○○대 경희대에 분패'라는 제목보다 '경희대 ○○대에 압승'이란 표현이 더 좋을 것이라는 말을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이 자주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학교의 자랑거리는 빠짐없이 지면을 통해 알리고 모교 발전에 장애가 될 문제가 있으면 혹독하게 꼬집어 궁극적으로 '경희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회원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

이처럼 지면의 숨은 행간을 통해 모교사랑을 실천하는 고황언론인 동우회가 생긴것은 86년 4월. 당시 서울신문 이사로 재직하던 김종림동문(법학과 9회졸업·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이사겸 총동창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이란 작은 인원이 발기인대회를 치르면서 시작됐다.

각사에 흩어진 동창들을 어렵사리 수소문해 그해 8월29일 240명이란 많은 동문들이 모여 '모교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뜻을 모아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으로 출범했다.

초대회장은 김종림동문이 맡았고 각 언론사별로 간사 1명씩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식행사는 매년 한번씩 갖는 '고황언론의 밤'. 이 행사를 통해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을 위해 열띤 토론도 벌이곤 한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관계로 성원들의 불규칙한 생활과 과중한 업무탓에 연1회씩의 전체모임을 갖지만 이런 속에서 결속과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작년 11월 중순 가졌던 전체행사에선 각사별로 간사를 1명씩 추천하고 사별로 정기모임을 활성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언론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언론계 취업희망자가 늘고 있는 최근의 추세속에서 모교출신의 후배들이 보다 많아지길 바란다는 김종림동문은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항상 마감시간에 쫓겨야하는 긴장의 연속인 생활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직업"이라며 "현재 언론사에 재직중인 동문 모두가 열심히 일해 성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언론계에서 '경희'를 보는 눈도 따뜻해 지고 있다는 얘기다.

동문이란 위치가 그렇듯 재학때 미처 못느끼던 경희에 대한 애정을 고황언론인동우회 회원들은 새록새록 확인하고 있다.

"재학시절 느끼지 못했던 경희에 대한 사랑이, 또 모교에 대한 아쉬움이 동문들이 만든 지면, 방송을 통해 짙게 우러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취재를 마무리할때 얼핏 흘린 총무 온종림동문(신방과 14회졸업·조선일보 편집부기자)의 말이었다. 고황언론인동문회는 이런 사랑속에서, 우리의 생활 밀접한 곳에서 모교와 재학생들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송보영 記者〉

朔風

미비한 환경정책에 오염된 수질

지난해 국회에서 전국의 수돗물 정수장 몇군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밝혀져 국민을 놀라게 했다. 보사부는 이에 앞으로 0.1ppm미만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문제에 관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회가 조사한 수돗물의 이 물질의 농도는 0.052ppm이라고 해 감사원의 0.049ppm이라는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여러차례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일이 없다고 감사원의 자료를 거듭 반박했다. 다같은 정부부서간 발표가 이렇듯 천양지차인 것에 놀라면서 한편으로 수돗물을 못미더워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오염대책에의 불신만 굳어졌다. 그 불신을 증명이라도 하듯 수주일째 계속되는 이번의 식수오염 사건은 국가의 환경정책의 깊이와 폭이 얼마나 저수준인가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절대선이었던 '성장제일주의'는 해악이 이제 극에 달했다는 절망감마저 들게 한다. 우리는 이 폐놀사건에 뒤이은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시민들의 분노를 보면서도 오염된 물마신 속처럼 답답함을 느낀다. 문제가 비등해질때마다 시민의 분노는 따라서 비등해지다 사라졌다. 이는 정부가 선언적인 미봉책만 세워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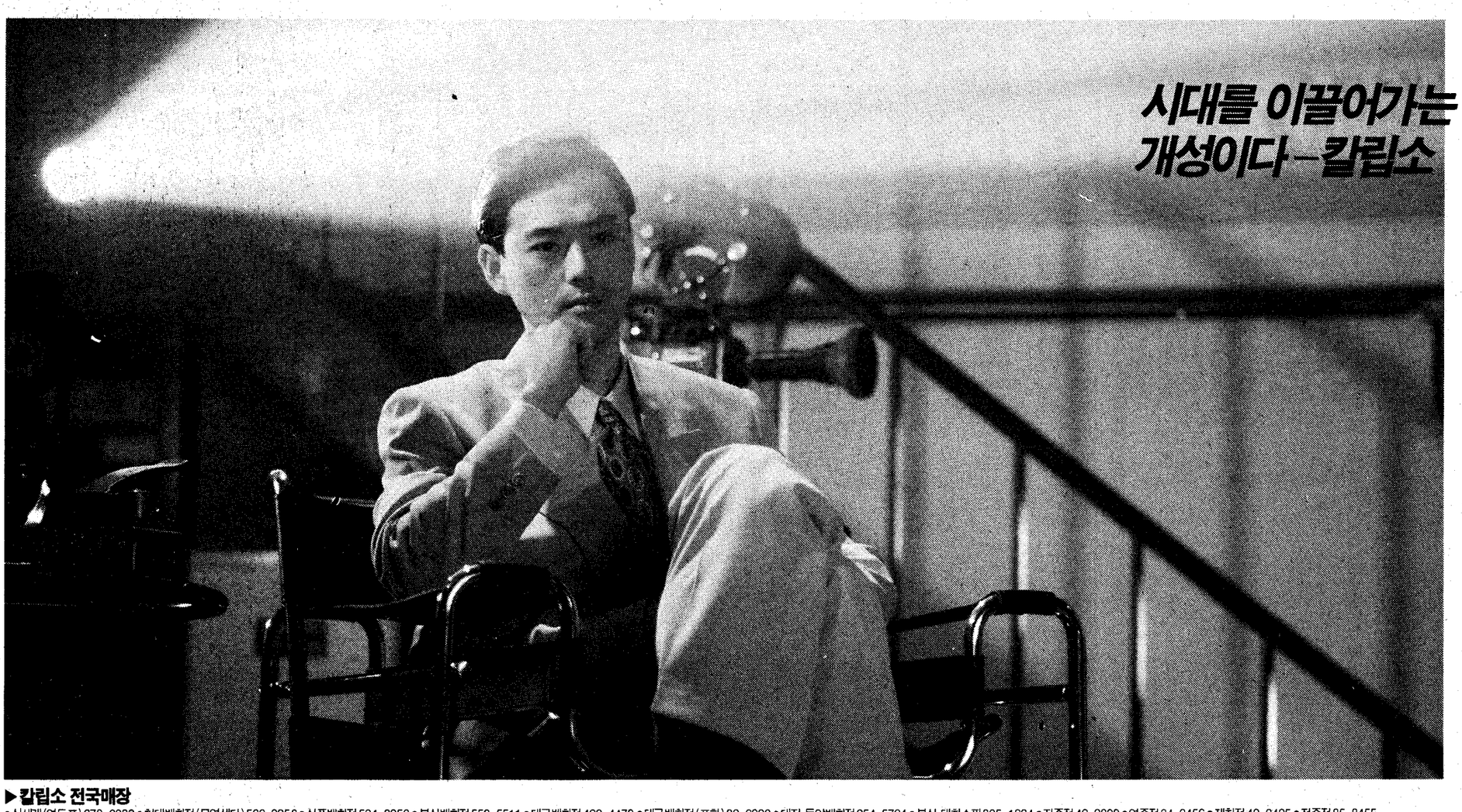
이번 식수오염 사건후 산업폐기물 대책에 갑자기 부산을 떠는 모습은 도리어 조잡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시점을 바로잡겠다는 노력을 탓할 순 없다. 그러나 거의 해마다 표면화되었던 오염소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어온 현실에서 생각하면 민심무마용 일회성 대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민차원에서의 소비계몽운동이나 감시차원은 별도로 하고 정책당국자의 혁신적인 의식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측면에서 예시할 수 있다. 이번에도 오염방지장치의 부족보다는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 근무태만이 주요인이 아니었던가. 이 예만 보아도 불신과 비난에 대한 예산, 인력의 부족을 들어 항변할 여지가 없다. 더우기 구 환경보전법상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실법 규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에는 빠져 업주에 대한 처벌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게한 점에서 본다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 인가를 반영해준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민차원의 오염방지노력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선거나 기타 사회적 사건에도 가려질 수 없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역할의 지속적 감시라는 측면에서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도 이제는 그 촛점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89년 5월 범지구차원에서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각료회의'를 정부안에 설치한 일본의 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일본의 환경청이 발간한 최근의 환경백서 서문에 있는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국지적으로'라는 자세가 국내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당국자에게도 생소하지 않게 들릴 때가 그나마 환경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須說〉



어떤 이름을 기억하는가. 갈릴레오가 "지구는 돌고 있다"고 처음 말했다. 마르코 폴로는 서양인으로서 처음으로 동양의 꿈과 신비를 기록했다. 재즈인 아트 블래키는 처음으로 드럼을 섹스폰처럼 연주했다. 웨일즈공은 처음으로 윈저 노트식으로 넥타이를 맸다.

어느 시대에나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은 규율이 아니라 개성이다. 남성 정장의 자연풍, 칼립소. 트래디셔널 정장의 격식에 시대의 풍미를 더한 남성 정장의 새로운 향취. "처음"을 사랑하며,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 가는 당신에게, 칼립소.

남·성·정·장·의·자·연·풍·칼·립·소

CALIPSO

(주)하이파이브 칼립소 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315 TEL:296-4606

▶칼립소 전국매장
●신세계(영등포)678-6382●현대백화점(무역센타)566-9958●삼풍백화점594-8956●부산백화점553-5511●대구백화점422-4470●대구백화점(포항)82-6990●대전 동양백화점254-5724●부산 태화쇼핑805-1234●진주점42-9800●영주점34-3456●제천점42-3425●전주점85-8455
●순천점52-3088●여수점64-2300●이리점52-2970●압구정 직영점540-0503●힐튼호텔 진솔직영점756-7409●대우센타직영점778-8657●광주직영점228-0109●부산직영점245-4667